

『시경』 연구 교류의 場 : 中國詩經學會 학술 동정

김수경*

들어가며

中國詩經學會는 1993년에 설립된 중국의 『시경』 연구 학회다.¹⁾ 경학 문헌 가운데 『시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 단체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학회에 해당한다.²⁾ 현인 王長華 회장은 河北師範大學 교수다. 학술대회는 주로 2년에 1회씩 개최하며 중국대륙 외에 대만,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등지의 연구자들도 참여한다. 2021년 8월에 1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제1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고는 중국시경학회의 주요 활동 성과와 해당 학회가 주최한 최근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E-mail: dansill@hanmail.net

- 1) 학회에 관한 주요 소개는 학회홈페이지(<http://wxy.hebtu.edu.cn/a/zgsjxh/xhjj/index.html>)를 참고할 수 있다. 단,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볼 때, 학회 홈페이지의 정보가 2015년 이후로 갱신되지 않고 있다.
- 2) 日本詩經學會가 중국시경학회보다 일찍 결성되어 『詩經研究(The Journal of Shi-Jing)』도 1974년 10월부터 출간되었으나 2014년 12월 이후로는 학회지 및 학술 활동 거의 검색되지 않고 있다. 『詩經研究』, 小牧: 日本詩經學會/詩經學研究センター, 1号, 1974年10月~2014.12.(36호)까지 검색됨(<http://wxy.hebtu.edu.cn/a/2015/10/23/20151023110024.html>), 한편 우리나라의 한국시경학회는 『詩經研究』, 創刊號를 1999년에 출간한 이후에는 학회지 출간이 없다.

학술대회인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시경』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참고가 될 뿐 아니라 한국경학학회 등 경학 연구 중심 학회의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일정 정도 참고가 되고자 한다.

연구 성과 축적을 위한 활동

중국시경학회는 해당 학회의 학술대회 성과를 학술대회 논문집과 『詩經研究叢刊』이라는 학술지로 출판하고 있다. 『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은 학술대회 논문집으로 학술대회용 논문집과 學苑出版社에서 출판하는 논문집이 있다. 근래 들어서는 학술대회 때 사용되는 논문집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출간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詩經研究叢刊』은 비정기 간행 학술지다. 격년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발표문을 정리해 잡지로 엮는 방식을 취한다. 2021년에 32집이 간행되었다. 중국시경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과 학술지 편찬 방식은 다른 학회가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기본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시경학회가 학회 내 활동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시경』 관련 연구 목록 정리는 기존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축적하고 검토하여 향후 연구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이와 관련한 중국시경학회의 역할을 기타 관련 학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시경』 연구 성과 축적 작업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된다. 村山吉廣·江口尙純의 『詩經研究文獻目錄』은 일본 연구 목록인 邦

文編(1868~1990)에서 761항목, 중국 연구 목록인 中文編(1900~1990)에서 4,742항목을 정리했으며³⁾ 이후 증보 작업들이 日本詩經學會 학술지인 『詩經研究』에 개별 연구로 제출된 바 있다.⁴⁾ 한국에서는 홍유빈(2020)의 「최근 5년(2014.01~2019.10)간 국내 시경학 연구 현황」⁵⁾에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된,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91편의 연구논문 목록 및 주요 연구 경향을 한국경학학회 학술지인 『經學』에 소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한국경학학회에서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寇淑慧의 『二十世紀詩經研究文獻目錄』(1901-2000)이 총 5,729항목, 補遺 20항목을 정리하였으며,⁶⁾ 대만에서는 周何의 『十三經著述考(一)·詩經著述考』⁷⁾가 書目, 역사서, 문집 서발문, 고증논평 등의 해제를 포함하여 총 9,115항목을 수록했다. 이 정리는 성격상 연구 목록과 저술 목록이 혼재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중국 대륙 외 대만·홍콩 등지에서의 후속 연구 성과는 夏傳才·馬輝洪·寇淑慧에 의해 『中國香港·台灣地區詩經研究文獻目錄(1950-2010)』으로 정리된 바 있다.⁸⁾ 이 중 夏傳才(1924~2017)는 중국시경학회의의 전임 회장으로 본 학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오랜 기간 학회를 견인한 학자로서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경』 연구 성과 축적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한 내용을 통해 한중일의 『시경』 연구 목록 편찬 작업은 각 나라의 관련 학회와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3) 村山吉廣·江口尙純(1992).

4) 江口尙純(2000); 江口尙純(2001); 西口智也(2003).

5) 홍유빈(2020).

6) 寇淑慧(2001).

7) 周何 編著(2004).

8) 夏傳才·馬輝洪·寇淑慧(2012).

걸쳐 지속적, 전면적,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학술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학회가 담당할 때보다 많은 연구자가 양질의 학문 기초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에서 王長華 회장은 향후 중국시경학학회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2000년까지 정리된 기존 『시경』 연구 목록(寇淑慧編)에 이어, 중국경학학회의 주관으로 2020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본 학회가 국가의 학술 지원을 받게 된 ‘二十世紀以來『詩經』研究的回顧와展望’이라는 학술활동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⁹⁾ 이를 통해 『시경』 연구 목록 정리가 개별 연구자와 학회가 긴밀한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성과 정리와 같이 관련 분야 연구자 전체가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해 학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주요 『시경』 문헌 목록 및 문헌 정리, 전범화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 『시경』 연구가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에서 편찬한 『韓國經學資料集成』 문헌 자료에 힘입은 바 크듯, 중국의 『시경』 문헌 목록 및 정리 성과 또한 중국 『시경』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劉毓慶(2002; 2008)의 역대 『시경』 저술의 정리와 해제 작업 및 주석별 정리 작업인 劉毓慶·賈培俊·李蹊·張儒(2006)의 『詩義稽考』¹⁰⁾는 중국시경학회에서 주편한 『詩經要籍集成』(2002; 2015)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시경학회에서 『詩經要籍集成』編輯委員會

9) 王長華·李娜(2021).

10) 상기 편저는 劉毓慶(2001), 『詩經百家別解考·國風』의 정리를 확장·정리한 주석별 異說 모음집의 성격을 지닌다.

와 함께 2002년에 주편한 『詩經要籍集成』(初編)은 141種의 대표적인 『시경』 要籍을 42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학회는 또한 해당 要籍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여 『詩經要籍提要』를 별도로 출판한 바 있다. 이 『제요』에는 『시경요적집성』에 수록된 141종의 저술 외에 부록으로 시경학저작 存目 및 存目 提要 260종, 청대 및 민국시기 저작 輯目 229종 수록하고 있다. 단, 2002년 初編 편찬 당시 현전 『시경』 문헌을 600여종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문헌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편찬 및 初編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詩經要籍集成二編』(修訂本)을 간행하여 善本·抄本·稿本 및 출토문헌 등 103種을 수록하였다.

한편, 2014년에 출판된 夏傳才 主編의 『詩經學大辭典』도 중국시경학회를 중심으로 출판된 연구성과에 해당한다. 上下冊 가운데 上冊은 基本理論卷, 三百篇解題卷, 詩體藝術卷, 出土文獻卷, 歷代詩經學史卷, 現代詩經學卷, 世界詩經學卷, 詩經文化學卷(및 附錄: 現代詩經著述目錄)으로, 下冊은 詩經詞語(4212조항), 詩經成語(693조항), 詩經名物, 詩經言語學(向熹), 中國歷代詩經著述存佚書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은 기존의 『시경』 연구문헌관련 목록서들의 목차구성을 참고하되 근래 부각되는 연구 항목들을 별도로 고려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상기 사전은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회원을 주축으로 학술성 및 참고자료성을 겸비한 전문학술사전을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시경학대사전』의 「前言」에 따르면 해당 사전은 중국시경학회 2004년 학술대회를 통해 편찬을 결정하고 학회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¹¹⁾ 학회의 회의를 통해 편찬을 결정하고 실제 출판물을 완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총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11) 夏傳才 主編(2014), 5면 참조.

볼 때 학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

그 외, 2021년에 영미권, 일본권, 한국권, 프랑스권의 『시경』 연구를 4책으로 구성한 『世界漢學詩經學』¹²⁾ 또한 중국시경학회가 주축이 된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이 연구 성과를 통해 중국시경학회의 관심이 중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시경』 연구 동향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회 중국시경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한국 시경 관련 발표

중국시경학회는 평균 2년에 1회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10월, 廣西大學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48편의 발표가 있었고 2018년 8월, 西北師範大學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02편의 발표가 있었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늦춰진 2021년 8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약 100편의 발표가 있었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정식 명칭은 ‘中國詩經學會第十四屆年會暨國際學術研討會’로 ‘중국시경학회 제14회 연례회의 및 국제학술연토회’이며 본 장에서는 ‘제14회 학술대회’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4회 학술대회는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섹션인 ‘『詩經』文獻研究·小學研究·詩旨考辨与歷史研究’에서는 20편이, 제2섹션인 ‘『詩經』文學研究与漢魏詩經學史研究’에서는 25편이, 제3섹션인 ‘宋以后詩經學史研究’에서는 24편이, 제4섹션인 ‘『詩經』文化研究·域外詩經學與詩經漢學研究’에서는 24편이 발표되었다. 섹션 발표 가운데 10

12) 夏傳才·王長華 主編(2021).

편의 발표가 학술대회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서 주제 발표 형식으로 재발표되었는데 그중 4편은 별도의 발표문 없이 PPT와 구두로 발표되었다. 10편의 주제발표의 경우, 언어문자혼고, 출토문헌, 문헌고증, 문화제도 분야가 중심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중국 『시경』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10편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한국 시경학 연구와 관련된 3편의 발표를 소개함으로써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시경학의 관심 방향 및 한국 시경학 연구에 대한 관심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0편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학술발표를 전후로 기타 학술지에 게재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 게재 학술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1. 李炳海(中國人民大學), 「『詩經』中宛·菀·苑의同源關聯及構成意象」: 因聲求義의 傳統訓詁方法을 運用하여, 宛·菀·苑자 모두 芘자에서 孳生하여 形·音·義가 相通하는 同源字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芘자의 基本含義가 하나는 屈曲의 모습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轉動의 의미를 가리키는데 『詩經』에 등장하는 宛·菀·苑자는 모두 이 두 의미가 運用된 것임을 高찰하였다.

2. 李旭昇(聊城大學), 「『毛詩·小雅·菀柳』探究」: 「菀柳」편의 ‘不尙’, ‘蹈’ 등의 字句 및 詩旨를 분석하였다. 특히 “有菀者柳, 不尙息焉”의 ‘不尙’에 대한 8종의 기존 異說을 종합한 후 ‘不尙’을 「鄭箋」의 ‘庶幾’에 의거하여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出토문헌인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越公其事』의 “孤用委命重臣, [馳]冒兵刃, 匍匐就君, 余聽命於門. 君不尙親友寡人, 抑荒棄孤, 圯墟宗廟, 陟棲於會稽.”구절에 쓰인 ‘不尙’의 用例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3. 趙敏俐(首都師範大學), 「簡論安大簡『詩經』抄本中的訛誤等問題」(2021년 『北方論叢』(哈爾濱師範大學)에 게재): 2015년 安徽大學에서 입수한, 海昏侯 劉賀 墓의 『詩經』(『安徽大學藏戰國竹簡(一)』에 57편(殘簡 포함) 수록)에 대한 자료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安大簡 『시경』이 戰國時代 초·중기의 『시경』 孤本, 珍本은 맞지만 善本은 아니며 현전 『모시』 판본이 지닌 완성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安大簡 『시경』을 연구하거나 인용할 때 이 점을 유념할 것을 강조하였다.

4. 李山(北京師範大學), 「從親耕典禮到祭祖儀式: 論『詩經』農事詩篇中的觀念變遷」: 중국 문화사·역사학 분야에서 『시경』을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부에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변천의 맥락을 읽어야 함을 주장했다. 가령 「周頌·噶嘻」편과 같은 초기 작품에는, 祭天典禮로서 農事와 生産이 강조되고 成王의 제사가 거론되는 데 비해, 「周頌·良耜」편과 같은 중기 작품에는 農耕을 일종의 전통으로 인식하고 내용이 풍부해지며 后稷의 제사가 부각됨을 고찰하였다.

5. 韓高年(西北師範大學), 「春秋聘禮觀詩與詩評詩論的產生」: 『시경』의 社會 기능을 말한 興觀群怨 가운데 ‘觀『詩』’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보고, 이를 춘추시대 史料를 통해 고구하고자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魯襄公 29년에 吳公 季札(당시 孔子 8歲)의 觀『詩』 사례부터 그 실제 상황 및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孔子 『詩』論 성립 이전의 詩論을 고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관련 저술로 『禮俗儀式與先秦詩歌演變』(2006)이 있다.

6. 邵炳軍(上海大學), 「春秋時期政治生態變遷與怨刺詩類型演化」(2020년 『山西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에 既發表한 내용): 춘추시대 怨刺詩 107편(『詩經』88편+逸詩19편)을 추출하고 怨刺對象이 속한 사

회계층을 天子·國君·卿大夫·家臣의 4종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春秋時期 怨刺詩 類型的 변천과정이 당시 정치생태환경의 변천 과정(『論語·季氏』篇: 怨刺天子與“禮樂征伐自天子出”(23편); 怨刺國君與“禮樂征伐自諸侯出”(66편); 怨刺卿大夫與禮樂征伐“自大夫出”(14편); 怨刺家臣與“陪臣執國命”(3편)(「南蒯歎」, 「南蒯歌」(『左傳』); 「鳳鳥歌」(論語))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7. 常森(北京大學), 「新出土文獻與屈原辭: 早期『詩經』學與『離騷』之關聯爲中心」: “巫咸降神告吉” 부분을 『離騷』를 독해하는 중요한 은유적 열쇠라고 보고 戰國竹簡(郭店楚簡「窮達以時」[늦어도 B.C.300년 이전 문헌(李學勤說)]) 등의 儒家思想 및 詩學관련 문헌 내용이 연관됨을 고찰하였다.

8. 馬銀琴(清華大學), 「雅·夏關係與周代雅樂正統地位的確立」(2021년 『北方論叢』(哈爾濱師範大學)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 風雅頌에서 夏가 아닌 雅가 사용된 배경을, 당시 用字 습관이 夏자 사용에서 雅자 사용으로 변화한 과정에서 찾고자 하였다. 先秦出土文獻에서 雅자는 예외 없이 모두 夏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戰國 中期 이전 문헌에서의 雅자는(『詩經』·『論語』·『左傳』·『孝經』·『墨子』·『周禮』·『禮記』) 주로 詩樂과 관련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左傳』의 ‘九夏’는 大小雅와 마찬가지로 왕실조희, 연향 등의 의례 활동에 쓰인 음악으로 雅樂에 속하며 공연방식[九夏—金奏; 大小雅—工歌]이나 그에 대응하는 典禮儀式의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漢代 초기에 雅자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의미도 복잡해지면서 字義 변천의 脈絡상에 斷層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9. 張祝平(南通大學), 「八股文宗師姑蘇王鏊科舉經義學術淵源」(2022년 『社會科學論壇』에 「八股文宗師王鏊科舉經義學術淵源」을 제목으로

계재): 經學과 科擧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연구자로서 入股文宗師 王鏊의 科擧經義時文의 學術淵源을 고찰하였다. 연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中國科擧錄彙編』 중 『成化二十三年會試錄』에 1등으로 등재된 王鏊의 문장은 실제 丘濬이 쓴 것임을 고증하였고 현재까지 정리·소개된 팔고문에 대한 정보 오류가 많으며 경학과 科擧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공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0. 王承略(山東大學), 「關於『詩序』研究的新思考」: 「모시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史의 형성 맥락에 주목하였다. 20년 동안 「모시서」를 연구한 기반 위에 「詩序」를 三部序로 나누고 이 가운데 중심(主體) 부분은 『毛傳』 이전 전국시대 중후기 孟子學派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子夏作『序』說’, ‘衛宏作『序』說’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衛宏이 편찬한 것은 「毛詩序」가 아닌 별도의 저술인 『毛詩序義』임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美刺說이 『시』 해석에 적용되는 시점을 고찰하였는데, 『맹자』나 『孔子詩論』에 美刺적 접근이 있기는 하나 美刺說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毛詩序」 一部序에 이르러서라고 파악하였다.

상기 주제 발표 외에, 제4섹션인 『詩經』文化研究·域外詩經學與詩經漢學研究에서 세 편의 한국 『시경』 연구 관련 발표가 있다. 세 편의 발표자는 모두 한국 시경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다.

1. 張安琪(太原學院), 「朝鮮王朝『詩經』的校勘及其文化意義」: 조선시대 시경학을 중국 시경학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조선시대 초기의 義理·倫理學 각도에서 중후기의 考證學의 각도로 전환한다고 파악하고, 成海應·申綽 등의 판본 교감 상황 및 특징을 종합·정리하고자 하였다.

2. 張景昆(山西大學), 「朝鮮時代申綽『詩次故』成書考: 兼論朝鮮對明清考據學的接受」(2021년 『國際漢學研究通訊』 第22期(北京大學國際漢學家研修基地 編)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 조선시대 『시경』 고증학 문헌인 신작의 『시차고』에 대해 『石泉遺集』의 『日乘』과 書信을 중심으로 『시차고』의 成書 과정을 고찰하고 신작이 참고한 문헌의 내원을 파악하였다. 신작이 공개적으로 인용했다고 표명한 唐代 이전의 문헌뿐 아니라, 각종 叢書에서 재인용한 상황 및 신작이 직접 표명하지 않은 宋代 이후의 저작을 인용한 상황[呂祖謙·王應麟의 시경학 저술 및 洪邁·顧炎武의 문자학 저술 등] 등을 밀도 있게 고찰하였다.

3. 金秀奭(公州大學), 「程子『詩』說對韓國朝鮮時期的影響: 以考察程子『詩』說與朱子『詩』說之間的韻頡爲中心」(2021년 『태동고전연구』 46집에 발표한 한국어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 발표): 주자『시』설과 정자『시』설이 성리학적 접근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님과 동시에 세부 『시경』 해석과 논의상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시경』 논의에 노정된 다양한 층차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경학 풍토가 강한 조선시대 경학연구에서 다양한 『시경』설이 발생하는 맥락을 살피는 데 하나의 접근 각도를 제공하였다.

나가며

이상에서 중국시경학학회의 학회의 주요 활동 성과 및 제14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내용 및 한국 시경학 관련 연구 내용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학회의 활동이나 최근 국제학술대회의 개략을 살펴보면

서 다음 몇 가지 특징에 유의할 수 있었다.

첫째, 학회를 주축으로 한 연구 성과의 集積. 중국시경학회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주요 문헌을 학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종합하려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해당 연구 영역에 권위 있는 학회가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집적해 줄 경우, 연구의 효율성 및 학술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연구 성과 집적의 다변화. 중국시경학회에서의 『시경』 연구 성과 集積 작업은 목록서 편찬에 그치지 않는다. 『시경』 관련 주요 문헌 자료를 직접 수집해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제 작업을 하며 『시경』 관련 辭典을 편찬하거나 확장, 심화된 연구서를 편찬하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회의 연구 성과 집적이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또한 연구자들이 신뢰하고 참고할 수 있는 학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지속발전적인 진행 가능성. 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까닭에 학회가 지속되는 한, 특정 주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시경학대사전』의 경우 2004년에 프로젝트를 결정하여 2014년에 완성하였고 『시경요적집성』의 경우 2002년에 初編이 완성되고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2015년에 二編을 완성하는 사례 등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넷째, 학술대회 발표자의 다양화. 초창기에는 『시경』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면 근래 들어서는 『시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석박사 연구생이나 다른 문헌이나 다른 분야를 연구하면서 『시경』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의 발표 수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청년 『시경』 연구자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시경』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접근을 다양화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국시경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중국어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이는 ‘국제학술대회’를 표방하면서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면에 해당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 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시경학회가 해외 연구자들까지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준다면 『시경』 연구 활동과 연구자 양성의 외연을 해외로까지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시경학회 홈페이지는 정보가 잘 갱신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주로 기존 회원에게 발송되는 메일을 통해 학회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까닭에 비회원인 연구자가 최신 학회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짧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100여 편 이상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시경학회의 활동성과는 『시경』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일정 정도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